

18세기 여자저고리 옷길이 변화요인에 관한 고찰

김 영 속

숙명여대 의류학과 강사

The Influence of the Socioeconomic Phenomena on the Fashion of Jugori

Kim Young Sook

Department of Clothing and Jextiles of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1985. 5. 17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socio-economic phenomena on the fashion of Jugori at the end period of the Yi dynasty when that women's cloth was very shortened. An attempt was made to show that fashion was not an outcome of foreign culture's influence, but the reflection for the living style and mentality of the people at that period when the socio-economic structure was rapidly changed. Alternatively, the paper tried to show the evidence that the change in the fashion was accompanied by the change in the economic structure shifting from the natural economy to monetary economy and in the structure of rural society experiencing the diversification of social classes.

I. 序 論

本稿가 의도하는 바는 18세기 여자 저고리 길이 변화에 대한 要因을 규명하는데 있다. 本 연구는 여자저고리 길이 변화에 대한 充分하고 精確한 事實적 자료를 基盤으로 해서 그 시대의 社會文化的 背景을 비교 검토하므로써 可能하다고 본다.

服飾연구는 다른 文化와의 관련下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18세기 이전의 조선시대의 여자저고리의 옷길이는 대체로 完滿한 短小化의 傾向을 지니고 있으나 18세기 말엽에 오면 갑자기 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人間社會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社會에 融合되는 가치觀 내지 윤리觀 또는 社會성을 반영하는 社會풍토에 따라 文化는 변화하기 때문

에 文化와 유기적인 關係가 있는 복식은 무의식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즉, 복식의 變遷은 文化의 變遷과 關係가 깊은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18세기 조선시대 여자 저고리의 옷길이의 급격한 短소화의 傾向은 文化的 變遷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推察을 할 수 있다.

조선시대 18세기말에는 實學思想의 대두 淸州의 出現東學의 發生 身分制度의 紊亂, 화폐경제의 발달등, 多數의 社會 變遷에 대한 요인이 있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淸에 가장 服飾의 변화에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18세기 여자저고리 옷길이 변화에 관한 자료

조선시대 여자 저고리의 옷길이는 대체적으로 完滿

하게 짧아지는 변화를 이루었으나出土된 유물 중 18세기 未葉의 思悼世子와 惠嬪 洪氏와 소생인 淸衍郡主(1754~1821, 영조말엽~순조)의 저고리 옷길이는 이전은 45~50 cm 정도에서 25 cm로 급격히 짧아진 형태를 보여준다. 이와같은 변화는 李瀾의 (1681~1763) 「星湖僿說」 李德懋의 (1741~1793) 「靑莊館全書」 安鼎福(1712~1791)의 「增補文獻備考」등의 문헌에서나, 당시의 화가 惠園 申潤福의 풍속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의 짧은 저고리의 착용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근래의 많은 연구는 저고리의 形態變化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언급되어 있다. 즉, 황효영(1975)¹¹⁾ 이경자(1976)¹²⁾ 고복남(1979, 1982)¹³⁾ 백금현(1982)¹⁴⁾ 박규미(1984)¹⁵⁾등으로 이러한 多數의 저고리 형태 및 부분적 유형 분석등을 통해 저고리의 시대적 형태변화는 대략 알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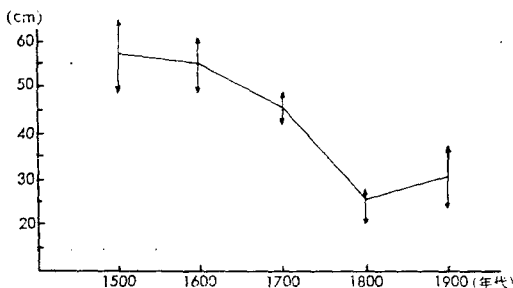
그러나 앞서의 연구가 저고리의 外形的 형태 변화에 대한 자료의 분석에 그치고 그러한 변화要因의 고찰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本 논문에 사용된 저고리 옷길이에 대한 그림 및 도표의 자료는 자 논문에 사용된 실물자료가 거의 同一한 것이므로 83년 의류학회에서 발표한 박규미의 여자저고리 깃수 연구에 실린 자료를 本人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였다.

2. 저고리 길이변화 이유 및 가정

짧아진 여자저고리 옷길이에 있어 어느때부터 만들어 입게 되었는지 확실치 않다. 유희경은 고려말 몽고복식의 영향¹⁶⁾으로 보고 있으며 또 임란(1590) 이후에 겹옷을 갖추어 입기 어려워지면서 짧은 속옷이 겹옷으로 되었다¹⁷⁾고 도 한다. 또한 이경자는 풍토적 조건의 영향¹⁸⁾이 아닌가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의 자료에서 보건데 (그림 1) 1700년대



[그림 1] 朝鮮時代 저고리 옷길이의 時代的 變遷

<표 1> 朝鮮時代 저고리 옷길이 변천의 t-test

年代	1500年代	1600年代	1700年代
1600年代	0.46		
1700年代	4.47**	6.12**	
1800年代	19.81**	34.53**	27.70**

* p<0.05

** p<0.01

에서 1800년대의 옷길이의 변화가 눈에 띄게 짧아져 임란(1592~1598) 병자호란(1636~1637)의 전쟁이나 풍토적 영향으로는 18C의 급격한 길이 변화에 대한 설명에 미흡함을 느끼게 된다.

또 이시기에 있어서 복식의 특징은 해원 풍속도에서 나타나듯 짧은저고리와 좁은 소매 최대한으로 겨입은 속옷들로써 즉 속치마 속바지의 종류와 수가 다양해져¹⁹⁾ 임란 이후 겹옷을 갖추어 입기 어려워지면서 짧은 속저고리 형태로 되었다는 설에 상반되는 것으로써 이는 당시 복식미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특히 加髻는 조선 후기에 지극히 사치한 풍조가 유행하여 영조 32년(1756) 정조 12년(戊申 1788)에 加髻를 금하는 법령까지도 내리기 시작했다¹⁰⁾.

이와같은 의복의 사치풍조와 복식미의 변화는 당시 사회여건의 변화로 경제적 뒷받침, 재료의 공급과 더불어 신분변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주자학의 지배하에 크게 발전을 볼 수 없었던 상업은 17세기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쓰이기 시작한 금속화폐 즉 상평통보가 18세기에 널리 유통이 되어 자연 경제에서 탈피 화폐경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업도시의 출현, 장이 서는 등의 변화와 농촌경제의 제층분화, 신분제 변동이 전반적인 조선시대의 봉건제도의 붕괴를 가져왔다.

또한 의복재료의 생산¹¹⁾, 즉 농업 생산의 전반적인 증가와 상업적 농업으로 목화, 삼, 모시, 담배등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의 재배는 전국적으로 목화 무명, 삼베의 명산지가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경제적 상승과 의복재료의 생산이 당시의 복식美를 나타내는 衣服의 형태를 가능케 했을 것이다.

복식文化는 근본적으로 경제 여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특히 의복에 직접 재료를 제공하는 직물 생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¹²⁾. 서양복식사의 경우 fashion change의 가속화는 르네상스에서 뚜렷이 볼 수 있는데 그 요인이 부유한 상인이 새로운 상승계층으로 등장된 것에서 보고 있다¹³⁾.

3. 조선후기사회의 경제적 변화

조선時代의 시대적 구분을 볼때 조선 후기의 시기는 영 정조시대를 기점으로 대체로 18세기를 기준으로 19세기 중엽까지 150여년으로 보고 있으며 저고리 길이가 짧아진 영 정조 시기는 조선시대의 중흥기로 중기에 겪은 여러 전란등과 재난을 극복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으며 문물의 제도가 이전에 비해 정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⁴⁾.

조선후기의 사회변동요인 중에서 복식의 형태변화에 가장 크게영향을 가졌은 것으로 경제적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배경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1) 농업경제의 발달

조선의 財政基盤은 농업이었고 농업 경제의 존재 여부는 國家의 安危와 직결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사회경제 전반에 변동이 일어났고 이와 보조를 같이 하여 농업경제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사회경제상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동을 수반하는 변화였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상의 변화 중에서도 농업문제는 그 中心이 되고 있었다. 농업문제에는 소 사회문제가 집약되고 사회변동은 농업문제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¹⁵⁾

조선 후기의 농촌사회의 특징을 보면 양반층의 부농층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나 또는 빈농층이 대체로 평민층이나 천민층보다 적다는 점에서나 양반층의 경제사정은 평민층이나 천민층보다 우세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반층은 평균 所耕의 면에서나 富農층 많다는 면에서 평민층이나 천민층보다 경제조건이 월등히 우세하였지만 평민층이나 천민층 중에서 일부 양반층보다 우세한 경제사정에 있는 地主가 상당수 이르고 있었다. 그것은 평민층이나 천민층으로서 양반층으로 상승해 갈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良籍의 假託이나 納粟贖良이니 하는 상승의 諸方法은 모두가 경제적 富力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富農층은 말할 것도 없고 잉여 농산물의 축적이 가능한 中農층에서도 기피하는 대로 양반층으로 상승해 감으로서 신분의 변동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小農층과 貧農층에서도 신분변동자가 많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이시기에서의 富의 축적이 自作 농토에서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면 농가 경제의 중소득에서 차지하는 小作경영으로 부터의 수입과 상업적 농업경영으로 부터 수입이 적지않이 컸던 것임을 말하여 준다¹⁶⁾.

조선 후기의 농촌사에 있어서 사회신분의 변동은 요컨대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신분구성을 이루고 있는 농민들의 농지소유를 中心으로 하는 경제적 계층분화와 농업경영이 그 土著가 되어 있었다고 하며 조선왕조의 봉건적 사회기구가 신분관계의 격동이 봉건사회의 발전사 가운데서 커다란 전환기를 조성하리라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농민층 內부의 계층분화 현상과 그에 따르는 국가의 對農정책으로 인하여 평민이나 천민이 양반신분으로 상승하게 된데서 야기된 것으로 봉건적 사회체제의 해체과정이었다.

조선 후기의 신분제 동요는 그만큼 심각하고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중세 봉건사회의 위기의 일면을 보는 것이며 조선시대의 후기사회가 전기사회에 비해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¹⁷⁾.

2) 화폐경제

임란이후 재정이 파쇄되어 유민의 발생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 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의 累積은 稅制의 혁신을 불가피하게 요청 大同法을 실시하게 되어 시작한지 100년후인 1708년(숙종 34년)경에는 평안 함경도론 제외한 전국에 시행 每結十二두의 大同米稅는 田稅의 每結四두에 비하면 약 3배이니 중전의 몇배되는 多量의 미곡을 움직이게 되어 막대한 양의 쌀을 집산시켰고 쌀 매매 中心地에는 새로이 상업도시가 출현하게 되었다. 막대한 쌀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환수단의 출현이 필요하였으니 즉 租稅체제가 단순 합리화되는 동시에 상품생산대지 교환경제의 발달이 촉진된 것이다¹⁸⁾.

화폐유통에 대해 이시기에 많은 학자들의 화폐론이 있는데 星湖僿說에서는 生財之道로서 「用徐」를 주장하는 직접적인 의도로써 奢侈에 흐르게 하는 錢貨의 유통과 상업의 興起를 억제해야 된다는 글은 당시의 경제변화가 초래하는 사회상을 단편적으로 말하여 주는 것이며²⁰⁾ 元裕漢은 화폐가 주는 영향을 「공사유통부면에서 제반 화폐기능을 발휘하게 되자 조선사회의 전통적 생산양식 및 의식체계의 변질이 촉진되고 있었다 즉 농업생산을 위주로 하고 실물 화폐유통이 지배적이었던 전통사회에 금속화폐의 유통이 보급 되자 농업생산의 위축, 상업의 발달, 고리 대업의 성행, 농촌사회의 분화, 소비 사치 성향의 조장 및 사회위신 척도의 변화, 전통사회의 해체가 급진화되었다」고 하고 있다²¹⁾

화폐경제·유통경제의 발달은 화폐의 유통을 촉진하게 된 이조 후기 賈人으로서 大同法의 실시로 그 발달을 보게 되었는데 이 賈인이 조달하는 품목은 다양하

〈표 2〉 전국경지면적

	元 帳 付	實 結	出 典
壬 亂 前(1592年以前)	{1. 510,194 1. 708,000	— —	磻溪隨錄 文獻備考 田賦考 2
壬 亂 後(1601年以後)	—	300,000	宣祖修正實錄 卷 35
光海君年3年(1611')	—	541,000	文獻備考 田賦考 8
仁 祖 12年(1634年)	(平安除外)1. 246,310	—	文獻備考 田賦考 1
肅 宗 45年(1719年)	1. 395,333	—	文獻備考 田賦 2
英 祖 45年(1769年)	1,411,948	800,843	文獻備考 田賦考 9
純 祖 7年(1807年)	1. 456,592	810,518	萬機要覽 財用篇
高宗 光武 7年(1904年)	992,444	—	文獻備考 田賦考 2

〈표 3〉 朝鮮時代の 戶口

(單位：戶，人)

年 代	戶 數	人 口	1 戶當人口
太 祖 4年(1395)*	152,403	322,746	2.1
仁 祖 17年(1639)	441,827	1,511,165	3.4
孝 宗 2年(1651)	580,539	1,810,484	3.2
顯 宗 1年(1660)	758,417	2,479,658	3.3
顯 宗 10年(1669)	1,313,652	5,018,744	3.8
肅 宗 7年(1681)	1,376,842	6,218,342	4.5
肅 宗 16年(1690)	1,514,000	6,952,907	4.6
肅 宗 25年(1699)	1,333,330	5,774,739	4.3
肅 宗 37年(1711)	1,466,245	6,394,028	4.3
肅 宗 47年(1721)	1,559,488	6,799,097	4.3
英 祖 8年(1732)	1,713,849	7,273,446	4.2
英 祖 17年(1741)	1,685,884	7,192,848	4.3
英 祖 26年(1750)	1,783,044	7,328,867	4.1
英 祖 35年(1759)	1,690,715	6,968,856	4.1
正 祖 1年(1777)	1,715,371	7,338,523	4.2
		男 3,537,786	
		女 3,700,737	
正 祖 13年(1789)	1,752,837	7,403,606	4.2
		男 3,607,376	
		女 3,796,230	
純 祖 7年(1807)	1,764,504	7,561,403	4.3
憲 宗 3年(1837)	1,591,963	6,708,529	4.2
哲 宗 3年(1852)	1,588,875	6,810,206	4.3
高 宗 1年(1864)	1,703,450	6,828,521	4.0
光 武 4年(1904)	1,419,899	5,928,802	4.2
光 武 10年(1906)	1,384,493	5,793,976	4.2
隆 熙 1年(1907)**	2,333,087	9,781,671	4.2
		男 5,174,531	
		女 4,407,815	
隆 熙 3年(1909)***	2,787,891	13,090,856	4.7

註：* 京五部の 調査가 缺如되었고 文獻備考에는 太宗 4年으로 되어있음.

** 日本警察顧問部調査

***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의함.

고 그 양이 커서 큰 이윤을 얻어 자본을 축적 우리나라 최초 상업자본가로서 등장해 되었고 이 賈人들은 이조 봉건 특권층에 기생하면서 자체의 실력을 배양하였으며 봉건적 자연(現物) 경제단계로부터 국민경제단계로써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이룩하였던 것으로 조선 봉건경제체제 해체에 주동적 역할을 스스로 맡아왔던 것이다²²⁾. 17C 후반기에 시작되어 18, 19C에 걸친 왕조 후기의 이러한 상업계의 발전은 금속화폐의 전국적인 유통과 더불어 對外國무역의 발달 상업人口의 현저한 증가로 서로 복합된 위에 상품 수요의 증가, 상품종류의 다양화, 상인 상호간의 경쟁의 격화, 상업자본의 대규모화, 특히 私商들의 官認市廛商人에 대한 도전과 상호경쟁, 전국적 상인조직망의 형성, 상업금융자본의 제조업 지배등 비록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할지라도 점차적인 자본주의적 商경영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다²³⁾.

유럽에 있어서도 화폐경제의 발달은 동시에 상업의 발달과 중세도시의 형성으로 실물경제와 賦役地代에 기초를 둔 농촌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 즉 12, 13세기 이래로 영주도, 농민도, 점차로 화폐 경제의 물결 속에 휩쓸려 들어가서 직접·간접으로 시장과 연결을 가지고 생산물을 매각하여 최대량의 화폐를 얻기에 큰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느끼기는 하였지만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이 농민층의 빈부가 뚜렷하게 생겨 농촌경제는 점차로 변질하고 봉건제의 해체가 진행되어 14, 15C에는 부유한 독립 자영 농민층이 성립해갔다²⁴⁾.

이상에서 본 사회 경제적 변화는 서로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나의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까지의 조선 사회 경제 변동의 극단의 시기로 잡고 있는 김용섭의 연구나, 조선 상업의 발달시기²⁵⁾, 또는 조선시대 도시사회 변화의 시기²⁶⁾등의 일차로 보아 한국 사회 경제사의 커다란 변화의 시기에 관제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 다른 면에서의 당시의 경제적인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선시대 수리사업의 구분을 보면 1640~1800년대를 부흥기로 보고, 治水와 水利 사업이 이전의 침체기에서 다시 활기를 찾은 시기²⁷⁾이다. 이와 더불어 간척사업이 가장 활발하여 戰亂으로 인한 농경지 감소와 농촌의 파탄 국가 경제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입란 前의 경지회복에 노력하여 입란 前의 結數에는 미치지 못하나 영조때 가장 많은 전국 경지를 확보한 것을 알 수 있다²⁸⁾.

그러나 경지면적에 대한 人口의 비례가 어떤 상태인

가를 알아야만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당시의 人口증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엽까지의 人口증가는 조선末期에 이르는 200여년간 人口가 정체 상태²⁹⁾에 놓였던 사실을 볼 때 조선의 재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의 확장과 그에 비한 人口 증가의 정체 상태는 저고리 길이 변화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조선시대의 경제적 상태가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해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Ⅲ. 結 論

유행의 흐름은 시대적 정신사조를 반영한다고 한다. 특히 의복 패션이란 인간에게 가장 밀접한 물질문화이며 그 패션 변화가 가장 쉽게 파악되며 측정될 수 있으므로 한 사회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한다.

本 연구의 결과로 조선시대 저고리 옷길이 변화는 당시의 경제발달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서 1) 농업경제의 발달, 2) 자연경제가 화폐경제로의 전환이다. 즉,

첫째, 농업 경제의 발달은 결과적으로 신분제 동요를 가져왔다. 그러한 반영으로 財力を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계층의 富의 과시 욕구로써 사치가 그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을 것이며, 이는 당시의 복식 급제령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의복의 착용 동기 측면에서 보면 복식의 사회계층이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하여 왔다. 복식에 의한 신분의 표시가 지켜지지 않을때 지배계층에서는 복식 급제령을 제정한다.

특히 조선시대는 금은, 직물, 服色, 또는 加襪에 대한 禁制²⁸⁾등이 있었다. 직물이나 加襪에 대한 禁制를 보면 조선시대의 여러 왕조에 걸쳐 나타나 있다. 김동욱은 역대의 왕중 奢侈禁匿에 傾注한 이로써 英祖를 꼽고 있으며 당시의 직물 및 加襪에 대한 禁制에 치중하고 있다²⁹⁾.

복식의 禁制는 곧 신분의 等威를 가리는 것이 된다고 볼때, 사치는 복식을 통한 자신의 신분이나 계층을 과시하고자 하는 사회경제계층의 표시 욕망이기도 할 것이다. 거꾸로 신분제도 및 사회계층의 문란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18세기만의 禁制가 곧 새로운 사회 경제 계층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人間의 생활에 있어서 사치에 대한 욕망은 어

느시기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저고리 옷길이 변화가 경제적 계층분화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시기에 가장 사치 금지에 직면한 시기에도 축점이 맞추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한편 저고리 착용 면에 있어서도 上流의 上衣가 없 어지고 內衣의 하나였던 속적삼 형태의 짧은 저고리가 유행하는 庶民식의 下向유행³⁰⁾ 현상은 과거 우리의 일 반적인 유행현상이 상류층의 모방이었다는 것을 생각 해 볼 때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으며 그러한 下向 유행의 의미는 신분계층의 분화의 일면을 內包하 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둘째, 자연경제가 화폐경제로의 전환으로 교환경제 의 발달은 상업의 발달을 촉진, 봉건제의 해체 및 보 다 자본주의적인 상경영의 길이 짧아지게 되었다.

의복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기의 衣料의 상업적 생산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신윤복의 미인도에서 보듯 꼭끼는 저고리와 겹겹이 겨입은 풍부한 치마 형태의 실루엣의 변화가 가능했을 것이며 즉 복식미의 변화에 한 몫을 기여했을 것이다.

당시의 衣料의 생산을 경제사의 측면에서 권병택은 자본주의가 썩이 틀 무렵에는 항상 직물 수공업이 선 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세계사적 사실에 착안 조선 말 기의 농촌 직물 수공업에서 그 맥을 찾고 있다³¹⁾는데 여기서도 衣料의 생산과 경제발전 단계에서도 깊은 관련 을 찾아 볼 수 있다.

농업경제의 발달, 또는 화폐경제로의 전환은 서로 깊 은 관련을 갖고 있으며 즉 경제적 변화는 사회文化的 변동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복식뿐아니 라 전 조선시대 文化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李東淵은 당시 풍속화의 유행이 이 시기의 사회환경 과 대응한다고 보았다. 조선 후기를 前·中期와 구별 하는 결정적 특징은 서민생활의 향상에 따르는 서민층 의 회화수요가 새로이 생겼다는 사실이며 英·正祖時 代 특히 정조 연간의 서민경제 발달과 깊이 관련되었 다고 한다³²⁾. 6·25동란 이후 별변화를 보이지 않던 옷 길이가 경제성장, 생활향상, 피복재료의 발달로 美的 으로 사치화되어 1970년에 와서 다시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³³⁾는 것을 볼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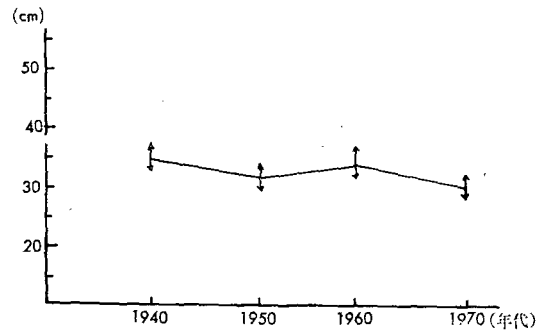
또,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적 변동이 18C 말에 와서 근대 서구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바라보게 되었으나 이 발전이 19세기로 이어지지 못했으며³⁴⁾ 마찬가지로 풍 속화 역시 순조末 이후로는 다시 침체에 들어가고³⁵⁾ 저 고리의 길이 역시 1800년도를 기준으로 1900년에 다시

〈표 4〉 現代 옷길이 변천의 T-test

年代	1940年代	1950年代	1960年代
1950年代	4.31**		
1960年代	2.60*	-0.99	
1970年代	6.26**	7.38**	7.12**

* p<0.05

** p<0.01



〔그림 2〕 現代 옷길이의 시대적 변화

갈어지는 현상은 인류학자 크뢰버(Kroeber)의 「패션을 이끄는 힘은 社會的인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그림 2 참조)

결론적으로 사회, 경제의 성장여부가 우리의 저고리 옷길이를 좌우 1960년대의 미니 스커트의 유행과 같은 스커트 길이 변동이 경기의 동향과 관련이 있다는 설 과 同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속담에 풍년 삼년이면 부인네 저고리가 짧아진다는 말 역시 그 것을 뒷바침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황효영, 한국여자저고리 형태의 역사적 고찰, 「대 한가정학회지」, 7권, (1985)
- 2) 이경자, 女子저고리小考, 「대한가정학회지」, 8권, (1976)
- 3) 고복남, 조선시대 일반복식연구, 청주사대論文集, 9집, (1979)
고복남, 한국저고리의 類型分析 문화재, 15호, 문 화재관리국, (1982)
- 4) 백금현, 옷깃과 옷깃의 형태변화에 대한 연구, 「服 飾」, 6호, (1982)
- 5) 박규미, 실물실측을 통한 女子저고리 치수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碩士學位論文, (1984)

- 6) 유희경, 한국복식文化史, 敎文社, 336, (1982)
- 7) 김동욱, 白衣民族 是非考, 저고리 是非考 박물관
신문, (1981) 9.1
- 8) 이경자, *op. cit.*,
- 9) 조효순, 조선조 후기 여성복식 개량논의, 「服飾」,
4호, (1981)
- 10) 배정용, 朝鮮朝 中後期 婦女 頭髮의 樣式考, 아세
아여성연구, 21집, (1982)
- 11) 한영국, 韓國史大系(6), 三珍社, 72, (1973)
- 12) 정홍숙, 服飾文化史, 敎文社, 161, (1981)
- 13) Horn, Marilyn J.,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 97, (1975)
- 14) 孫禎睦, 조선시대 都市社會研究, 일지사, 116,
(1977)
- 15) 김용섭, 조선후기 농업사연구, 일조각, (1970)
- 16) 김용섭, *op.cit.*, 159.
- 17) ———, *op.cit.*, 439.
- 18) ———, *op.cit.*, 441.
- 19) 김용덕, 한국사의 탐구, 을유문화사, 17, (1981)
- 20) 한우근 이조후기의 사회와 사상 을유문화사 232,
(1961)
- 21) 元裕漢, 조선후기 화폐 유통구조 개선론, 一面「역
사학보」, 제56집, (1972)
- 22) 유원동, 이조후기 상공업사 연구, 한국연구총서,
134, (1968)
- 23) 孫禎睦,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일지사, 129,
(1977)
- 24) 大世界百科辭典 2, 경제, 太極出版社, (1972)
- 25) 金儀遠, 한국국토개발연구, 대학도서, 144, (1982)
- 26) 한국문화사대계, 정치, 경제사, (4) 高大民族文化
研究所, (1969)
- 27) 韓國地誌, 총편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0)
- 28) 유희경, *op. cit.*, 369
- 29) 김동욱, 增補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443,
(1979)
- 30) 조효순, *op. cit.*,
- 31) 權丙卓, 李朝末期의 농촌 手工業生産에 관한 연구
(序說編) 영남대논문집~ Vol. 1-2, (1967)
- 32) 李東洲, 한국회화소사, 서문당(1972)
- 33) 박규미, *op. cit.*,
- 34) 한국민속대관 2. 사회구조 관혼상제 高大民族文化
研究所, 212, (1980)